

## 아시아 및 베트남 제약산업 최근동향

- 아시아 제약산업은 세계 제약산업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 중에서도 베트남 제약산업은 90년대 이후 연간 10%의 성장을 기록하여 외국 제약기업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sup>1)</sup>

### □ 아시아 제약산업 동향

- 아시아는 현재 제약산업을 포함한 세계 보건의료시장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시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아·태 지역의 전체 보건의료 시장은 2000년 1,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임. 의약품 등 제약산업이 아태지역 보건의료 시장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의료기기 및 진단용품인 것으로 분석됨.
- 지난해 아시아 지역의 제약시장은 3,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제약시장의 28%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됨. 앞으로 2005년까지 동 지역 시장규모는 1,1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경제 회복세와 환율의 안정으로 아시아 제약시장은 2000~2005년 사이 5.8%, 일본을 제외한다면 10.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아시아 제약시장의 성장은 노인인구 증가, 서구화 질병의 증가, 병원시설 및 의료기술 향상,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등으로, 그 성장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 □ 베트남 제약산업의 성장 및 수출입 현황

- 베트남 제약시장은 1990년대 초 연평균 25%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1) *Saigon Times Weekly*, May 11, 2002; *보건산업기술동향*, 2001 겨울; [www.inpharma.com](http://www.inpharma.com) 등을 참조하였음.

등, 연평균 10% 안팎의 성장을 거듭해 왔음. 2000년 베트남 제약시장은 10.2%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약 3억9,800만 달러 규모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집계됨.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약제비 지출 규모는 8% 증가한 5.40 달러를 기록하였음. 2005년에는 6억3,500만 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약제비 지출액도 최소한 8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

- o 2000년 보건성의 허가를 취득한 수입의약품 수는 전년도보다 11.8% 증가한 769종이었음. 2001년 현재 약 3,700종의 외국산 의약품이 판매 중으로 베트남 전체 제약시장의 38%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입규모는 4억1,700만 달러에 이르렀음. 특히 항생제와 같은 기초의약품이 부족하여 그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베트남은 또한 지난해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 등지에 1,300만 달러의 의약품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짐.

#### □ 제약 생산 및 외국인 투자 현황

- o 베트남 국내산 의약품 생산량도 2000년 34%나 증가하여 약 2조3,140억 dong (1억5,400만 달러) 상단에 이르고 있음. 2000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어 등록된 의약품 수는 1,510종에 달하였고, 등록된 320개 제약기업 가운데 65%가 민간기업인 것으로 알려짐.
- o 외국 제약기업들의 베트남 제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2001년 현재 16개 외국기업들이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합작투자 사례도 8건에 달하고 있음. 투자규모는 총 1억7,200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되며, 이 중 대표적인 10개 공장에서 2000년 4,120만 달러 상당의 각종 의약품이 생산되었음.
- o 베트남 정부가 80년대 후반 항생제 등과 같은 기초의약품의 민간 수입을 허용한 이래 외국계 제약기업이 베트남 제약시장을 물량 및 종류 면에서 주도하고 있음. 주요 외국기업은 Fournier, Lipha, Sanofi, Pierre Fabre 등과 같은 프랑스 제약업체로, 베트남 현지생산을 하고 있음. 대미 무역협정 발효 이후, Pfizer, Roche 등의 미국 및 유럽계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진출도 가시화 되고 있음. 이밖에도 한국, 태국, 대만, 인도 등의 제약업체 진출도 활발함. 특히 한국과 인도의 일반의약품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급증하고 있음.

#### □ 제약산업 관련 정책

-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베트남 제약업체는 국가 소유로 남아있음. 또한 의약품의 생산과 소비에 큰 영향을 주는 병원 등 의료기관이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음.
- 의약품의 수입은 보건성과 외무성의 승인을 요함. 허가의 발행은 베트남 국내 미생산 의약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잦은 정책변화가 있었음.
- 베트남 보건성은 국내 제약산업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력하고 있음. 특히 아세안에 가입한 베트남은 1996년이래 모든 제약생산에 아세안의 제품생산기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베트남 제약관리부(Pharmaceutical Management Department)는 금년 이후 GMP에 따르는 업체에만 주요의약품의 생산을 허용하는 정책을 통해, 오는 2005년까지 모든 제약업체의 GMP 적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임. 2002년 4월 현재 27개 기업이 GMP 인증을 받았으며, 이중 7개가 외국계 기업임.